

## 폴란드 이자율 인하 배경과 향후 전망

### □ 이자율 25bp 인하 발표 (2005. 7. 27)

- 2005년 7월 27일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(Monetary Policy Council, MPC)는 이자율을 25bp 인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금년 들어 4 번째로 인하 조치를 취함.
-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5.0%에서 4.75%로 25bp 인하되었으며, 통화정책은 기존의 완화(easing)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.

### □ 이자율 인하 배경 및 시장 반응

-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.5% 이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,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율 인하 조치가 취해짐.
-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1/4분기의 2.1%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.5%~3.0%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. 따라서 투자촉진 등을 위한 이자율 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됨.
- 기준금리가 금년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, 당초 시장에서는 더 큰 폭(약 50bp 수준)의 이자율 인하를 예상함.

- 한편, 고유가 부담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은 상존하고 있음.

## □ 향후 전망

- 7월 거시경제지표에 따라 앞으로의 이자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.
- 6월의 양호한 거시경제지표가 이자율 인하폭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7월의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는 경우 금년 9월 의회선거 전 이자율 추가 인하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.
-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, 통화정책(easing bias)의 유지 등을 고려할 때, 향후 연말까지 대체로 25bp~50bp의 추가 인하 가능성 의견이 우세함.

<자료제공: 폴란드주재원>

전문연구원 최 은 경 (☎3779-6665)  
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

※참고: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정책변화 추이

일 자	주 요 내 용
2004. 6~8	인플레이션이 4.6%로 3년만에 최고에 달했던 6월, 7월, 8월,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(총 1.25%p)
2005. 2. 25	인플레이션이 2004년 말 4.0%에서 2005년 1월 3.7%, 2월 2.6%로 낮아짐에 따라, 2005년 2월 25일 통화정책을 긴축(restrictive) 정책에서 완화(easing)정책으로 변경
2005. 3. 30	2003년 6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9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3.4%로 떨어지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로 인하 <sup>1)</sup>
2005. 4. 27	경제성장률의 하락(5% → 4%) 및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지표의 악화 전망 등으로 두 번째로 기준금리 50bp 인하 <sup>2)</sup>
2005. 6. 29	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는 반면, 경제성장률 둔화 및 zloty화의 강세기조 등으로 인해 세 번째로 이자율을 50bp 인하 <sup>3)</sup>

<자료제공: 폴란드주재원>

- 1) 중앙은행은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상승의 위험부담보다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악영향에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 인함.
- 2)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(상반기말 2.5%, 연말 2.0% 이하) 이하 수준으로 전망(4월 3.0% 추정)되고, 차기 의회선거 시기 및 신정부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함. 통화정책도 완화(easing)에서 중립(neutral)으로 bias를 변경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전략을 시행함.
- 3) 통화정책도 중립(neutral)에서 완화(easing)로 bias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거시경제환경에 맞도록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